부처님은 '마음' 연주하는 아티스트

레게가 곧 부처님 말씀이자 진리
미륵보살이 되고픈 김반장은 '음악하는 농부'

레게 소울 밴드 '윈디시티'

"우리 생명의 물줄기 강을 잘라서 흐르는 물을 막아 고이게 한다는 것이 과연 내일을 위한 것일까?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대비를 하고 흐르는 물을 막아 고이게 한다는 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것일까♬ 우리는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네 잊지 말게나,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가 열린 4월 17일 서울 조계사. 24시간 염불 ·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계사 경내에 레게 음악이 울려 퍼졌다. 괘불 앞에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알록달록한 복장을 입은 젊은 밴드가 신나게 연주하고 노래했다. 레게 소울 밴드 '윈디시티'다.

이날 '윈디시티'는 1만 여 사부대중에게 낯선 즐거움을 선사했다. 레게 선율에 4대강 사업 반대 메시지와 자연의 섭리를 노래했다.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일 <법구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런 엄청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날까지 위하여~"라며 청중의 박수를 이끌기도 했다.

걸죽한 막걸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김반장(유철상 · 34)은 우리나라 레게음악 1세대를 이끄는 실력파 레게그룹 '윈디시티'의 리더로 보컬이자 드럼연주자이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한국대중음악상 노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2006년)한 레게음악 유망주다.

윈디시티는 4대강 살리기 영상프로젝트 '저수지의 개들'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 '저수지의 개들-Take 1 남한강'의 배경곡 '위하여'를 통해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이 뮤직비디오는 3월 13일 여주보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강선원(선원장 수경) 개원 날 촬영됐다.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U-tube)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젊은 유망주 밴드들이 용감하게(?) 돈 안 되는 공연과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뭘까?

김반장은 "4대강 사업은 끔찍한 일이다. 마음이 아프다.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음악인이라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반장은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물, 공기, 산, 갯벌이다. 한걸음 뒤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을 수백 만 장 찍는다고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김반장은 자연의 소중함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자연을 한번 거스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흐름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거대 담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에게 섭리를 적용해 보면 그것이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윈디시티를 결성할 때에도 의식 있는 그룹이 되고자 했던 이들은 그동안 핵문제, 전쟁, 석유, 환경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노래를 꾸준히 해왔다.

"제가 하는 소울음악은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에요. '음악이 밥벌이인가, 음악으로부터 받는 매력이 무엇인가?'라는 자문에 겉모습이나 기교가 아닌 진실을 담은 음악, 진정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반장은 3년 전 자메이카에서 레게음악을 접하고 진정한 음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자메이카 뮤지션들은 음악을 소유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과 나눴다. 삶의 노래를 부르고, 보이지 않는 고통을 노래했다. 그들의 생활은 물질적 부유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삶이 풍요로웠다.

김반장은 "레게가 곧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은 곧 레게다. 또 진리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레게는 선어록"이라고 정의 내렸다.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은 잿밥이다.

그는 "왜 태어나서, 왜 사는가?"라는 화두를 안고 살아왔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 준 것이 바로 경전이었다. 주변에 '보살'같은 친구들이 많아 불교를 접하게 됐다는 김반장. 김반장의 불교는 머리 속 지식이 아니라 가슴속에 담겨 있었다. 김반장은 <법구경>과 <잡보장경>, 법정 스님의 책 등을 누구나 평생토록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꼽았다.

김반장은 한때 사회현상과 주변 상황에 화도 내고 답답해 할 때가 있었다. "왜 이래야 할까? 왜 속고 속여야 할까? 나를 찾는 여정은 왜 없는가. 미디어는 왜 행복을 방해하는가, 왜 분에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분노도 치밀었다.

그러던 때 만난 <법구경>은 그에게 한줄기 광명과도 같았다. '불을 불로 끌 수 있는가, 물을 물로써 씻을 수 있는가'라는 구절이었다. 그 구절에 김반장의 번뇌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말씀을 기념하기에는 지쳤어요. 부처님도 행을 강조하고 있듯 아는 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전에는 마음의 주인이 돼야 하기에 경전 문구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4대강 반대운동 등 그의 공연스케줄과 음악만 봐도 그가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반장은 음악가로 개인적인 차원을 넘은 메시지 전달이 최종 목표다. 자신들의 음악을 듣고 삶에 매몰돼 잊고 지내던 것들을 찾길 바란다.

"음악은 자기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음악을 통해 자신은 늘 깨어있는 '나'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완성될 때까지 '부처도 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 말처럼 온전한 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김반장은 "부처를 비롯한 성인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이다. 특히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김반장은 늘 자연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 미륵보살이 되고 싶단다.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늘 함께하는 컨트리맨. 김반장은 '음악하는 농부'였다. 올 여름에는 실상사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집 짓는 일을 배우고 텃밭에 삽질을 하며 자연을 몸에 담을 계획이다. 그는 자연과 가까이 할 때, 흙을 밟으면서 자연같이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아티스트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윈디시티와 김반장

김반장(사진)은 2003년부터 그룹 아소토유니온에서 'Think About' chu'로 대중 음악계를 휩쓸었다. '단순한 음악 엔터테이너가 아닌 생각하고 활동하는 예술가집단이 되겠다'며 2005년 윈디시티를 새로 결성했다. 5월 27일에는 상상마당 라이브 홀에서 가수 이승환과 함께 '외규장각 도서 및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 참석한다. 콘서트 수익금 전부는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소송 · 활동기금으로 쓰인다.

NH NongHyup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서서울농협
농촌에 희망을 고객에게 행복을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서서울농협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서서울농업협동조합
본 점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전화 : 02)302-4321~3
연 수 원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544-4 전화 : 031)582-9912
유통분사 | 서강본점 02)3144-5253 응암점 02)302-1125
하나로마트 | 사직점 02) 725-4021 신사점 02)388-8925
망원지점 | 338-6711 신사지점 | 388-8921 홍은지점 | 394-0133 상암지점 | 375-2762 연서지점 | 383-3045 갈현지점 | 383-4471 수색지점 | 376-0315 홍제지점 | 732-2892 홍대역지점 | 337-6896 광흥창지점 | 324-2031 연희지점 | 326-3961 사직지점 | 725-4571